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려고 내려 왔노라”

❖ 사사기 15:9-13

9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10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11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12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13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 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결박 당한 삼손

삼손은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분풀이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태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양식을 잃은 분풀이로 삼손의 장인과 아내였던 여인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다시 삼손은 그에 대한 복수로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고 유다 땅 에담 바위 틈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도 잡고 삼손 때문에 잃은 식량도 보충할 겸, 유다로 올라와서 ‘레히’라는 지역을 짓밟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대답은 자신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대로 갚아주기 위해 너희를 공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다 사람 삼천 명이 모여 에담 바위에 머물러 있던 삼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고 말했습니다. 삼손 또한 블레셋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자신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 것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서로 자기는 아무 잘못 없고 정당하게 복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에게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 줘야겠다.”고 말하고, 삼손은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절대로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새 밧줄 두개로 삼손을 결박해서 바위 틈에서 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블레셋과 싸울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서 삼손은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쳐죽입니다. 그런데 삼손을 결박하러 모인 유다 사람들의 수는 3천입니다. 그 3천으로 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는 유다 지파가 가사와 아스글론 과 에그론을 정복하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사사시대에 블레셋의 영토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정복한 땅을 블레셋에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유다 지파의 현실입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블레셋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블레셋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결박하여 블레셋에 넘겨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블레셋은 호전적인 민족인데다가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전 블레셋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드온의 300 용사로 미디안의 13만 대군을 이기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등장했던 어떤 사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삼손이라는 구원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된 원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삼손이지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사사로써의 사명과 블레셋을 충분히 제압하고도 남을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힘을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는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삼손에게 힘을 주셨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삼손을 사사로 세워 블레셋과 목숨을 걸고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구원자를 결박하여 대적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삼손을 결박하려고 유다 사람들이 3천 명이나 몰려간 이유는 혹시나 삼손이 저항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뜻밖에 순순히 결박 당했습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은 ‘삼손이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우리가 삼손을 제압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주신 ‘삼손’이라는 핵폭탄을 곱게 포장해서 자신들의 대적인 블레셋에 선물해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과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블레셋에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합니다. 그러나 지난 주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구원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시대까지 계속해서 블레셋 괴롭힘을 당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7:45-47을 읽겠습니다.

❖ 사무엘상 17:45-47

- 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 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 47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은 키가 3m가 넘고 어려서부터 이름난 용사였던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도발했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전쟁터에 나간 형들 도시락 배달하러 왔던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자청해서 골리앗과 맞섭니다. 사울은 자기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주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리고 평소에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할 때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내게 오라. 내가 네 살을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고 위협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네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새와 짐승들에게 주어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향해 돌진하는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물맷돌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블레셋 병사들은 황급히 도망쳤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치는 블레셋 병사들을 추격했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양치기였던 다윗은 애초에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골리앗에게는 없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구원자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블레셋에 굴복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비록 자신은 골리앗 앞에서 돌맹이 하나에 불과한 미미한 존재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무기 삼아 골리앗과 담대히 맞선 결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사울

❖ 사무엘상 26:7-12

7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8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러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9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11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 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자기를 질투하여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사울이 자기 진영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부하들과 함께 발견합니다. 아버지세라는 부하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다. 내가 창으로 사울을 찔러 땅에 꽂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울 머리맡에 있는 물병만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죄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울 때에는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반면에 사울과 다툰 때는 사울을 살려주고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사울을 대하는 방법과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둘 다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거둔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두 경우 모두 여호와와 이름을 무기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졌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줬던 것입니다.

정복, 무기, 승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하늘과 바다를 정복하고 그 안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어 있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타락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자들은 세상에 정복 당하거나 지배 당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정복해야 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시고 타락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블레셋의 통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풍조에 적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부하고 정복하며 다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난하거나 미천하거나 병약해도 다윗이 여호와와 이름을 힘입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능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삼손이라는 강력한 구원자를 가졌음에도 블레셋에 짓밟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양상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고 완전히 소멸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우리의 승리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 줌으로써 계속해서 도망다녀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인내와 고난과 희생을 통해 승리를 거두셨던 것과 같이 오래 참고 용서하고 양보하며 계속해서 손해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충간소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온지 4년째입니다. 이사온 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충간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애가 하루 종일 뛰어다녀서 고생했는데 몇 번 찾아가기도 했고 그 아이가 방학을 맞아 할아버지 집에 한 동안 머물렀던 것이어서 금방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 뛰니까 이번에는 어른들이 새벽 5시부터 발소리를 내면서 돌아다녔습니다. 평일에는 저도 새벽기도를 나가니까 괜찮은데, 토요일처럼 아침 잠을 잘 수 있는 날에도 발소리에 잠을 깨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발소리에 잠을 깼 때면 비몽사몽 중에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인간들 이사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지난 달에 소리소문 없이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 비하면 전에 살던 분들은 천사였습니다. 이사 오기 한 달 전부터 인테리어 공사 한다고 괴롭히더니 이사 온 후에는 밤 열한시부터 새벽 한 시까지 발에 망치를 달고 돌아다닙니다. 찾아가기도 하고 관리실에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지난 주에는 살살 좀 걸으시라고 쪽지를 써서 현관문에 붙였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보복할 수도 있겠지요. 천장에 붙이는 스피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효과는 확실한데 불법이라서 포기했습니다. 계속 민원을 넣거나 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말이 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 번처럼 기도로 해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정하는 중인데, 일단 윗집이 이사가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꼭대기층으로 이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현재 이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소음에 무더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인데 평생을 소음에 민감하게 살았기 때문에 응답 난이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목사인 제가 드릴 수는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간 소음의 주범이 사고를 당해서 꿈쩍없이 누워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제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사인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기대하시나요? 그리스도인으로써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시편 20:1-9을 읽겠습니다.

❖ 시편 20:1-9

- 1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 2 성소에서 너를 도와 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불드시며
- 3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 4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 5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 6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 7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 8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 9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시편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킵니다. 왕이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갈 때 왕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승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시편 기자는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병거와 말은 이 당시에 최강의 무기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온갖 무기를 다 갖추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약한 대적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에게 병거나 말이 없어도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자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강력한 적도 정복하여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간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무기 삼는 재물이나 외모나 인맥이나 학벌이나 자기 재능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대신 대적과 싸워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을 믿고, 주께서 지금도 여전히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이나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지배되는 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통치를 따를 때에 승리의 영광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충간소음을 유발하는 이른 바 ‘발망치’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대적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냥 참고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처럼 타협 없이 담대하게 대적과 맞서서 죽기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다윗이 사울을 대한 것처럼 오래 참고 용서하며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기도 제목을 정하기에 앞서 내가 택한 방법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세상에 서 배웠거나 나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말씀을 중심으로 두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 시작되는 대적들의 공격 앞에 낙심한 나머지 죄의 통치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기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있든 십자가로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를 거두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대처하심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볼 질문들

1.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를 잘 다스리고 해결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어떤 문제에 자신이 굴복하고 있었던 경험이 있나요?
2.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길 무기는 재물이나 인맥이나 학벌이나 자기 재능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 층간소음과 같은 존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